



봉우 컬럼

아랫사람을 춤추게 하라

흔히 구글(Google) 본사를 캠퍼스(campus)라고 부른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회사 차원의 배려를 하고 있어 직원들이 낭만을 좇는 대학생처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상사들은 직원들에게 근면 성실을 강요한다.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대우조차 박하면 근면 성실은 솔직히 어렵다. 일하는 게 재미있으면, 신이 나면 근면 성실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근면 성실해진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과거가 '사업 중심의 경영'이었다면 지금은 '사람 중심 경영'을 해야 한다. 리더는 직원들이 도구나 수단 이 아닌 소중한 동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종업원이 춤추면 회사도 춤추기 때문이다.

각 기업마다 몰입도 지수(PEI: Program Engagement Index)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바로 직원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는 직장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식당을 개설했더니 직원들의 능률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교회도 성도들을 춤추게 하면 교회는 절로 부흥된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영혼 육의 영양을 공급하면 성도는 움직인다. 서로 사랑하고, 나가서 전도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매일 공부하라고 욕박지를 것이 아니다. 늘 대화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들이 행복해할 것이고,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 직원을, 성도를, 가족을 춤추게 하라. 그것이 리더의 임무요, 목사가 마땅히 할 일이며, 가장이 힘쓸 부분이다.

교회 25주년 행사에 이루어진 목사님의 방문은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 목사님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촉구하셨다.

"지난날 내가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비록 내 사지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내 생각마저 마비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나는 죽을 듯이 예수 이름을 불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고침 받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었으나 그의 생각마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다 KGB에 붙잡힌 적이 있지만, 그들이 내 생각마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튿날 세미나를 시작하며 목사님은 슬라바(Slava) 목사를 단상 앞으로 부르더니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줄꼬?' 그 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옳게 여겨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의 복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슬라바 목사에게 지혜를 선물하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슬라바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선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마저 사로잡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 모두가 천사의 얼굴이었다. 예수님 찬양(슬라바 고스빠두), 승리가 있다(마야빠빠다)를 함께 춤추며 찬양했다. 또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불러내어 일일이 안수해주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목사님은 선포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선물했고, 기도를 선물했고, 찬양을 선물했습니다. 이 기쁨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저 중앙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대축제 벨라루스 집회 광경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썩은 결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원망 불평하는 생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좌절과 낙망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멋진 생각이 멋진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가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들고 달려올 것입니다."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선물을 들고 가면 주인은 나보다 손에 든 선물을 먼저 바라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합니다. 아픔이 원수에서와 하나된 것도 바로 선물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선물해보았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직원들에게 얼마나 선물해보았습니까? 선물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 선물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을 기뻐 받으

슬라바 목사와 성도들은 합심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었다. 슬라바 목사의 동생은 '이제 눈을 떴다. 나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당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베풀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안경을 벗은 청년을 비롯한 많은 병 고친 간증들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이 집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던 주일4부예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 멀리 벨라루스에서 성령의 대역사로 응답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단상 앞으로 나와 춤추며 찬양하는 성도들



슬라바 목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다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기도해주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1~24)



너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나?

코너에 작은 돌이 박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놈의 돌부리 때문에 다쳤잖아.” 하며 돌을 원망하는 사람이 한 부류요, “아이고, 내가 돌부리를 못 봤구나. 그래도 코 안 깨졌으니 감사하네. 다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으니 옮겨놓아야지.” 하는 사람이 다른 한 부류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전자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핑계를 대고 원망부터 합니다. 아마도 이견 유전인가 봅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3:12). “하나님, 저를 죄 짓게 한 것은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요, 하와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더니 하와 역시 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여러분,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은 ‘~ 때문에’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못된 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서인지 가인도 그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납하지 않으셨구나.’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야 옳건만, 가인은 원인이 아벨 때문이란 생각으로 동생을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건만 (삼상15:3),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레놓고 사무엘에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15:21)라고 변명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때문이라고 핑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핑계 대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

굽 군대가 쫓아오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느냐고 불평했고 (출14:11), 마실 물이 없다고(출15:24),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성을 높이는(출16:2) 등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7~28).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즉 40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간 광야에



거하게 하셨습니다(민14:29~38).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잘못된 것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 때문에’ 대신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 형들은 흉년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온 상태로 상면하게 됩니다. 이에 형들이 지난 날 자신들이 한 일이 있는지라 심히 근심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45:5). 형들의 먹살을 잡고 바로 옥에 처넣어도 아무도 너무하다고 할 사람이 없을 상황이지만, 요셉은 이렇게 된 상황을 ‘형들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며 형들을 되레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고 고백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덕분에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교계에서 이단이니, 잘못되었다느니 한 덕분에 세계로 발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지가 마비되고, 눈이 터지고, 간이

안 좋은 덕분에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더욱 능력을 받았고, 교회가 없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며 매주 물

위를 걷는 환경 덕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징검다리 삼느냐, 문제를 동굴 삼아 주저앉느냐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덕분에’라고 생각해야 그 문제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강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모세의 능력은 바로의 강박함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덕분에 모세가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롬9:17). 한나가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얻은 것은 브닌나의 학대 덕분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학대하니가 기도한 것입니다. 브닌나가 동기부여를 한 셈이죠(삼상1). 모르드개가 영광을 받고 에스더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의 기쁨을 누린 것은 온전히 하만 덕분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이고(삿11), 롯은 과부가 된 덕분에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

를 수 있었고(룻4), 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덕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만난 건 소경으로 태어난 덕분입니다(막10). 북한 덕분에 우리가 국력을 더욱 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병든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회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병든 남편 덕에 기도하고, 속 썩이는 자녀 덕에 내가 부모 마음을 알고, 구역장 때문에 내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처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환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욕이 사람으로서 차마 겪을 수 없는 일을 다 겪으면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할 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사에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목적이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것이지, 주저앉아서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를 징검다리 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덕분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때문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상을 갖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이나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닮기를 원합니다. 긍정을 넘어 초긍정의 생각으로 진군하는 여러분의 목자를 닮으세요.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얼굴은 마음의 창!

세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진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80개의 근육을 가지고 무려 7,000여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상대방의 얼굴입니다.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얼굴과 표정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표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얼굴도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입술에 말이 바뀌고, 삶이 전체적으로 변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성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이란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이란 영혼을 뜻하고, ‘굴’이란 통로를 뜻하는 단어로, ‘얼굴’이란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나타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은 환경과 관계없이 해처럼 빛이 나아

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절망하며 마음에 원망과 악을 품고 살아가니 가롯 유다와 같은 얼굴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므로 마음의 상태가 변해야 얼굴이 바뀝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관리는 얼굴의 표정관리를 하면 됩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얼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판임’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서 ‘얼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린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애기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 어르고 달래다가 애기가 방긋이 웃으면 엄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돕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이 먼저 바뀌면 상대방의 얼굴도 바뀌게 됩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분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웃음 바이러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TV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다. ‘복이 먼저 와야 웃는다’는 말이 아니고, 복이 오기 전에 이미 ‘웃었다’는 말이다. ‘웃으니까 웃는 복이 따라온다.’는 말이다. 즉 웃음이 먼저이고, 행복은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가끔 예배시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하하~’하고 웃어보라고 하실 때, 참 많이 어색하다. 혼자 웃자니 이상하고, 모르는 옆 사람 바라보며 웃자니 뭔가 뒤틀어진 사람 같으니 말이다. 오히려 목사님이 신나게 웃으시는 모습 때문에 웃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냥 한번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활짝 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다. 웃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되는 행복의 바이러스이다. 웃음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웃음은 능력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데일 카네기의 [웃음 예찬]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

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서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서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깊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으며,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괴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토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하루를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시작하고, 그 기쁨을 웃음에 담아 하루하루를 매듭짓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맛있고 아름다울까? 오늘도 예수 안에서 웃고 살 뿐만 아니라 웃음의 선물을 많이 건네주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길 소원해 본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문제와 맞서라

30년 전쯤 얘기다. 대학원 논문 발표 때에 단상에 올랐다가 평소에 짝사랑하던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입이 얼어버렸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상상에 맡기자. 내심 최우수 논문까지 노리며 심혈을 기울였던 터였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운지 말할 수 없었다.

당시에 신경정신과는 정신병자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때였다. 워낙 견딜 수 없어서 안면이 있던 백병원 비서실장께 부탁해서 신경정신과 과장을 소개받고 찾아갔다. 그런데 과장실 문 앞에서 하필 회사 여직원을 만나 당황해서 안과에 왔다고 둘러대고는 자리를 피했다. 잠시 후 눈치를 보다 과장님을 만났다. 과장님 왈, “당신은 정상이다. 그러나 고통 받고 있다. 히틀러는 비정상이나 고통 받지 않았다. 고통 받지 않으면 환자가 아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고통 받으니 치료 받아야 한다.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은 본인을 사랑하고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

에 다 극복할 수 있다. 과장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군대 유격훈련을 받다가 생겼는지 고소공포증이 심했다. 2층 난간에 걸터앉지도 못했다. 신혼여행 갔던 스위스 몽블랑에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 바깥을 못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만 보고 올라간 적도 있다. 높은 산을 타면서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했다. 그러나 결코 피하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12층 방에 살며 유리창으로 매일 매일 밖을 보면서 마침내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문제를 피하면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고치고자 하면 방법은 꼭 있다. 기도만 해선 안 된다.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다. 두려운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더욱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청년대학부 7월 24일(월) ~ 26일(수)

중고등부 7월 27일(목) ~ 29(토)

장소: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 533. 9191

:: 귀를 기울이세요 ::

변화, 어려운 숙제

2012년 1월 19일,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의 그룹이었던 코닥(Kodak)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잊을 수 없는 찰나’를 뜻하는 ‘코닥 모먼트(Kodak Moment)’의 코닥은 시대적인 변화, 곧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함께 필름 시장의 급락세로 어려워졌다. 사실 코닥에게도 돌파구는 있었다. 회사 내 ‘스티브 세손’이라는 사람이 197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코닥은 자사의 필름을 더 못 팔까 우려하여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막았고, 변화된 산업 판도의 구조적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적응하지 못해 망한 기업이 되었다.

이에 반해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노선을 갈아탄 한 그룹이 있다. 바로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업체인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 유료 가입자만 1억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넷플릭스는 한 달에 7,000~8,000원의 금액을 내면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온라

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 요즘 각 가정마다 IPTV가 있어 원하는 방송이

나 영화 콘텐츠를 결제하고 보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1997년 넷플릭스는 비디오와 DVD를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하였다. 업계 1위가 아니었던 넷플릭스는 다른 돌파구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후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유통하는데 멈추지 않고 직접 영화나 TV를 제작하기까지 한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다른 곳과 차별되게 자사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연출 스타일, 좋아하는 배우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를 본 시청자의 85%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최근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감독 봉준호의 영화 ‘옥자’를 제작하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까지 진출하게 된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앞에 변화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의 삶, 신앙이 위태로울 때가 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 삶의, 내 신앙의 저해요소를 구조조정하여 이 땅에서, 천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태아 뇌 속의 물혹이 사라졌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을 갖길 원했습니다. 결혼 후 첫째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딸을 얻었고, 둘째를 갖기 전 제 믿음대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둘째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목사님인 일오삼 목사님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셔서 둘째는 아들로 현재 임신 6개월 차입니다. 그러던 중 4월 4일 20주 검사 차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의사가 태아 뇌에 물혹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아 뇌에 물혹은 의사도 어찌 할 수 없기에 진료만 받고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내 기도예 응답하셔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물혹쯤이야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 고

칠 게 뭐냐' 라는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주일, 일오삼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함께 3일 작정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배도 불러와 몸도 무겁고, 기도하는 동안 '16개월 된 첫째를 보살피지 못하니 어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게 보살피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4월 10~12일, 오후 2시부터 매일 2시간씩 온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작정기도 둘째 날, 저는 태아 뇌 속에 물혹이 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되고, 차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경험자들의 지식을 얻기 위해 지역망 인터넷 카페에 조언을 얻고 싶다고 글을 올렸더니 여러 엄마들의 조언이 실렸습니다. 물혹은 사라지니 걱정 말라는 엄마도 있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엄마, 또 다른 기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다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뇌병변 6급 장애인단을

받았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착잡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일 작정기도 하는 동안 딸은 혼자 교회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기도하는 제 옆에 와서 혼자 조용히 잠들기를 반복해주어 작정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오삼 목사님이 언제 다시 병원에 가냐고 물으셔서 5월에 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기도제목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4월 23일 주일 예배시간에 성도님들께 각자의 문제를 놓고 합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7일 여리고 작정기도를 하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여리고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리고 작정기도 4일째 날이 진료일이라 5월 2일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머리에 혹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사라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고,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집안의 문제도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었던 금액은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돌려받을 수 있게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더니 분양사무실에서 다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응답받은 것을 말씀드린 후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5월 8일까지 작정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좌절 속에 낙망하고 계십니까? 합심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청주예수증심교회 성도 김진화**

:: 내가 매일 기쁘게 ::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복음성가의 노랫말이다. 정말 사람 사는 일은 알 수가 없다. 알다 가도 모를 일이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다. 일상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섭리는 때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견잡을 수 없는 축복과 영광 속에서 꿈인지 생인지 분간할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한다. 15년 간 모 배우의 팬 카페를 관리해왔다. 말이 15년이지 나의 20대 전부와 30대의 절반이 그곳에 녹아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블루칩'을 넘어 '원칩'으로 통했던 이 배우의 삶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다. 3만 명이 넘게 북적거렸던 카페는 철지난 바닷가의 쓸쓸처럼 폐허로 변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카페의 운영자라는 이유로 나는 남들처럼 떠나지도 못하고 철지난 카페에 홀로 남아 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여러 편의 영화가 개봉됐었고 흥행과 실패를 보면서 배우의 재기를 기도했었다.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자신이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그가 연기한 인물에 녹아든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순간이 배우에게는 가장 축복된 순간임을 알기에 배우의 찬란한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운영자와 배우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7~8년 가량 폐허로 있던 카페가 단 하루 만에 가입자 400여명, 방문자 1,000여 명이 넘는 활화산이 되어 버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내 입장에서, 배우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난 10여 년의 시간은 요셉이 때를 기다렸던 그 시간처럼 지난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쉼 새 없이 올라오는 카페의 글들을 보면서 문득 배우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떠올랐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었다. 그 때, 주님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연기에 집중하고자 애썼던 그의 중심을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성공과 재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카페지기인 엄마와 운영자인 나의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확신한다.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의 상황은 지난 8년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배우와 그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자 놀라운 축복이다. 오랜 시간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연기에만 집중했던 배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기도하며, 이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그리움

맨드라미 맘 맘 고개 돌리며
임 찾다 고개 떨구네

종달새는 지저귀며
임과 알 품어 세월 가는 줄 모르나
임 없는 맨드라미
초라히 고개 떨구네

아지랑이 춤을 추며 창공을 날으니
목 빠지게 쳐다보던 맨드라미
힘없이 고개 떨구네

언제나 오시려나, 내 님이여!
저녁노을 아름다움도
임 없는 맨드라미
스산하기 그지없구나

朋友

❀ 태도는 생각의 거울이다
적을 제압하려면 너의 태도부터 바꾸라

Your attitude is the mirror of your thoughts.
Change your attitude if you want to overpower your enemy.
态度是想法的镜子, 想要制服敌人, 就要从你的态度开始改变。

❀ 태도와 언어는 성공의 열쇠다
Your attitude and language are the key to your success.
态度和言语是成功的钥匙。